19세기 文科에 대한 고찰

박 현 순*

1. 머리말
2. 문과의 시행 양상
  1) 문과의 시행 횟수 및 선발 인원
  2) 直赴殿試 자격 부여와 恩賜科의 시행
3. 문과 응시 경향
  1) 鄕試 응시 추이
  2) 친림시 응시 추이
  3) 朴得寧(1808~1886)의 과거 응시
4. 문과의 선발 결과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은 유교 이념에 기초한 學行과 실무 능력을 갖춘 고급 관료를 선발할 목적으로 文科를 실시하였다. 문과는 개인의 능력을 본위로 중앙정치권력과 사회지배층을 재생산하는 시험제도였다.

완전 경쟁을 표방한 문과는 공정하게 개인의 재능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였다. 따라서 시험의 전 과정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채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봉함하는 封彌法과 인적 사항과 답안을 분리하는 謄封法, 필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답안을 朱草하는 易書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응시자가 준비하는 試紙의 지질과 규격, 內打印을 통한 답안의 중간 점검 등 그 세부적인 제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밀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과거가 고급 관료를 충원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는 응시자들의 부정과 권력층의 부정이 결합되며 과거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가운데 19세기는 돈으로 과거를 사고 팔 정도로 문란이 극에 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당대인의 평가는 상당부분 사실에 기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앞서 19세기 과거제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면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19세기 과거의 폐단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는 물론 과거 자체가 어떤 구조 하에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1] 19세기 과거 문제는 당대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부정과 문란상만이 부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19세기에는 과거가 남설되며 문과 급제자가 급증하고 소수 집권층에 급제자가 집중되었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과방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도정치기 과거의 시행 결과는 중앙의 인사 수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과거에서 소외되었던 서북지역에서도 다수의 급제자를 배출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계층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2] 이에 따르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19세기 과거제도는 적절하게 통제되며 인사 수요를 충원하고 사회계층의 이동에도 기여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것이 시험이나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적인 균형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과 차별이 당대인들이 체험한 과거제의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과거제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의 가운데서 19세기 문과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과거의 문란상으로 제시된 문제들이 19세기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흔히 科場의 문란으로 표현되는 조선후기 과거 문제는 많은 경우 응시자나 관계자들의 부정으로 치부되어 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나는 과거의 설행 횟수 및 선발 인원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를 과도하게 설행하여 과장이 문란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응시 자격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인

---

1) 조선시대 과거제의 운영 양상을 다룬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그 중 19세기 문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세도정치기 문과방목을 분석한 남지대의 연구와 대원군 집권기 문과 시행 양상을 분석한 성대경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대경, 1985 「대원군정권의 과거운영 : 문과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19, 성균관대학교 ; 남지대, 1990 「중앙정치세력의 형성 구조」『조선정치사』 상, 청년사.

2) 남지대, 1990, 위의 글 ; 에드워드 와그너 저·이훈상 역, 2007 「조선시대 출세의 사다리」·「사회완충제로서의 과거 : 서북지역의 사례 연구」『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지속』, 일조각.

학력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과장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과거의 결과에 관한 것으로 급제자가 권력자의 자제나 서울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조선시대 내내 과거 설행 횟수와 선발 인원을 줄이고, 응시 자격을 강화하고, 급제자의 편중을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문과의 시행 양상과 응시 경향, 시험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19세기 문과 운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문과의 시행 양상

1) 문과의 시행 횟수 및 선발 인원

조선시대 문과는 3년에 한차례씩 시행되는 식년시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며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增廣試, 別試, 庭試 등의 慶科, 국왕의 문묘 전알을 기념하는 謁聖試, 문신 重試의 對擧로 시행된 重試對擧別試,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外方別科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정기시인 式年試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여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慶科, 특정인이나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문과는 식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경국대전』에도 식년시 규정만이 실려 있다. 그러나 세조대 이후 경과 시행이 늘어나 17세기부터는 식년시보다 경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속대전』에는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등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수록되어 있다.[3)]

경과는 국가의 경사를 백성들과 함께 누린다는 '同慶'을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왕이나 집권 세력의 인사 수요나 민심 수습의 필요성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政變, 戰亂, 換局 등 정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경과가 더욱 자주 설행되었으며, 선발 인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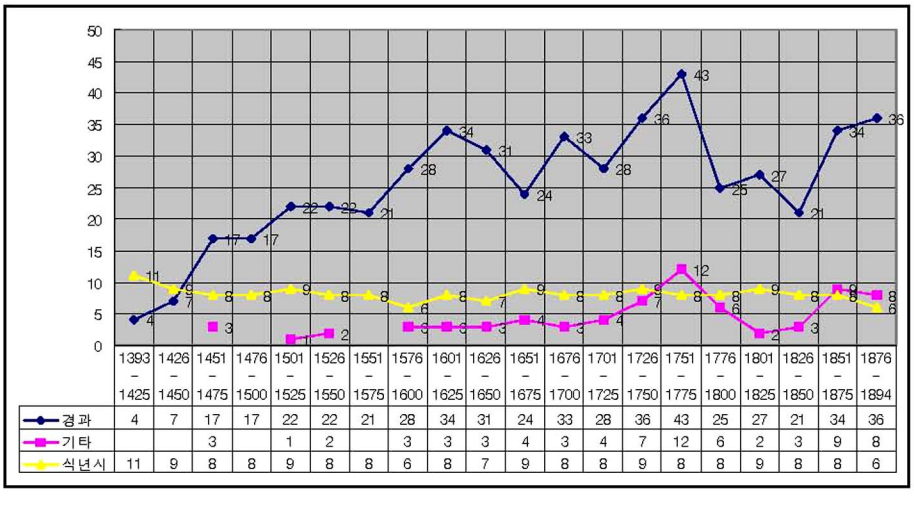
하지만 과거를 자주 설행하면 요행을 바라는 응시자가 늘어나 과장이 문란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선발 인원이 늘어나 문관의 인사 적체가 유발될 소지도

3) 차미희, 1999『朝鮮時代 文科制度 硏究』, 國學資料院, 151-161면.
4) 차미희, 위의 책, 162-182면.

켰다. 이 때문에 과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 회수와 선발 인원을 인사 수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5)]

조선시대 경과의 시행 횟수를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6)] 그런데 영조대 후반인 영조 27년-51년(1751-1775)에는 그 횟수가 폭발하여 25년동안 43회의 경과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횟수이다. 이 기간에는 식년시를 포함한 전체 선발 인원이 1,204명에 달하는데, 이는 고종 13년-31년(1876-1894)의 1,249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영조대 후반의 과거 남설은 결국 심각한 인사 적체를 유발하였으며, 그 여파는 정조대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정조는 즉위초부터 가능한 한 경과의 시행을 자제하며 科場의 관리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정조 재위기간에 해당하는 정조 즉위년-정조 24년(1776-1800) 사이의 경과 시행횟수는 25회로 영조대 후반의 절반으로 줄었고, 전체 선발인원은 779명으로 약 2/3수준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숙종대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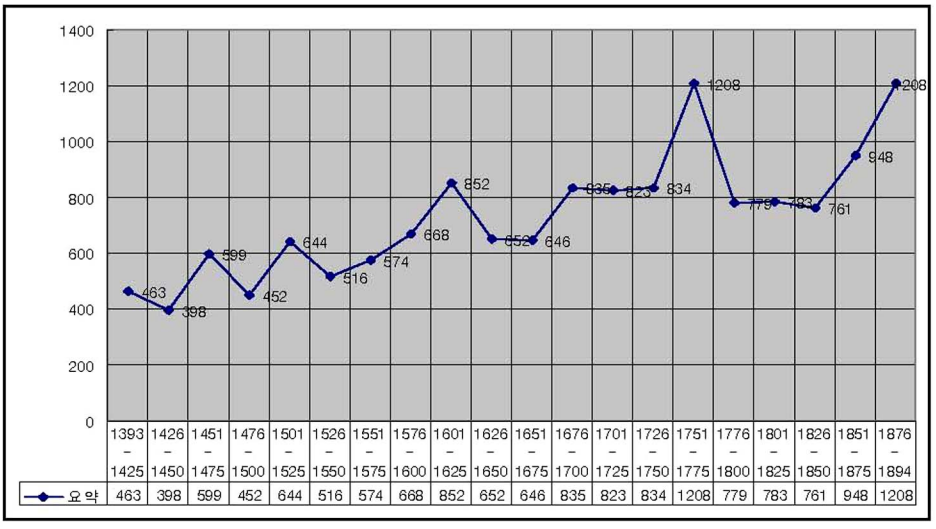


	1393-1425	1426-1450	1451-1475	1476-1500	1501-1525	1526-1550	1551-1575	1576-1600	1601-1625	1626-1650	1651-1675	1676-1700	1701-1725	1726-1750	1751-1775	1776-1800	1801-1825	1826-1850	1851-1875	1876-1894
경과	4	7	17	17	22	22	21	28	34	31	24	33	28	36	43	25	27	21	34	36
기타			3		1	2		3	3	3	4	3	4	7	12	6	2	3	9	8
식년시	11	9	8	8	9	8	8	6	8	7	9	8	8	9	8	8	9	8	8	6

<그림 1> 조선시대 慶科의 시행 횟수

5) 이하 방목의 분석은 『國朝文科榜目』(태학사 간)과 『CD롬 補註 朝鮮文科榜目』(동방미디어, 2001)에 기초하였고, 직부전시자, 入門數, 收券數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서 추출하였다.

6) 여기서 '慶科'는 식년시와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방별과, 耆老科 등을 제외하고 慶祝이나 기념의 의미를 지니는 과거 시험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증광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알성시가 포함된다.



<그림 2> 조선시대 文科의 선발 인원

19세기 전반의 문과 시행 양상은 정조대의 연장선에 있었다. 순조·헌종대에 해당하는 1801년–1825년, 1826년–1850년 사이의 경과시행 횟수는 각기 27회와 21회, 전체 선발인원은 각각 783명과 761명으로 정조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연평균 경과 시행 횟수는 순조대가 0.94회, 헌종대가 1.00회로 정조대의 1.04회보다 약간 낮았고, 연평균 선발인원은 각각 30.9명과 30.3명으로 정조대의 32.4명보다 적었다.[7)]

이 규모는 문관이 맡는 京官職 숫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8)] 실제 순조–헌종대 문과 선발 인원 연평균 30.9명은 인사적체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17세기 후반 숙종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헌종대까지 문과 선발 인원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종–고종대에는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경과 시행이 늘어났다. 1851년–1875년 사이의 25년 동안에는 34회, 1876년–1894년까지의 19년 사이에는 36회의 경과가 시행되었다. 왕대별로 연평균 시행 횟수를 보면 철종대는 1.28회, 고종대는 1.71회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철종대에는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평균 급제자 수는 33.6명으로 앞 시기에 비해 약간 늘어난 정도에 그쳤다. 철종대에도 순조·헌종대의 기

7) 연평균 선발 인원은 식년시와 외방별과, 직부전시 등을 포함한 전체 문과의 선발인원을 포함한다.
8) 남지대, 앞의 글, 145면.

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고종대에는 경과의 시행횟수가 연평균 1.71회로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연평균선발인원도 57명에 이르렀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영조대보다도 많은 인원이었다. 특히 고종은 親政 이후에 과거를 자주 설행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시기 연평균 경과 시행횟수는 2.1회였고, 연평균 선발인원은 63.8명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고종대에 이르러 과거 시행을 억제하려던 기존의 원칙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설행 빈도나 선발 인원의 증가는 줄곧 과거의 문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설행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문란상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중앙정치권력은 문과를 통해서만 재생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든 세도정권이든 정치기반의 확대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를 자주 실시하고 선발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순조대 전반의 경우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난다. 순조 전반은 벽파와 시파, 세도가 사이에 정치적 경쟁과 갈등이 잔존하는 가운데 순조도 정치 기반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순조 7년(1807)까지 즉위 기념 증광시나 알성시 등 정례화된 경과 외에도 討逆, 上候平復 등을 명분으로 거의 매년 2-3차례의 경과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선발 인원이 많은 증광시도 세 차례나 포함되어 있었다. 순조 8년(1708) 이후에는 과거 시행을 억제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과 시행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순조 16년(1816)까지 두 차례의 증광시를 더 실시하였고, 세차례의 정시에서는 평소의 2-3배에 이르는 20명씩을 선발하였다.

이와 달리 순조 17년(1817)부터는 문과 선발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전후 시기를 비교하면 순조 16년까지는 경과의 시행 횟수가 1.3회, 연평균선발 인원이 37.9명인 반면 순조 17년 이후에는 연평균 경과 횟수는 0.6회, 연평균선발인원은 24.6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과거 시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의 연합에 의해 세도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정치세력의 확대를 막고자 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헌종·철종대까지 과거 시행이 억제되는 양상도 동일 선상에서 권력의 분산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순조 27년(1827)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기에는 다시 과거 시행과 선발 인원이 증가하여 과거를 통해 정치기반의 확대를 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정이 회복된 고종대에는 과거 시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원군 집권기에는 宗科나 璿派儒生應製 등을 자주 시행하였고, 고종 친정 이후에도 정시나 應製를 자주 설행하였다. 이 역시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종 친정 이후의 과거는 인사 수요나 관직 제수를 고려하지 않고 賞與와 위무의 형태로 남설되었다. 이것은 과거제도 자체가 인사선발 기능을 상실한 채 형해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2) 直赴殿試 자격 부여와 恩賜科의 시행

18세기 이후의 문과 급제자 중에서는 초시나 회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에 응시하는 直赴殿試者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부전시는 국왕이 내리는 恩賜로 주로 성균관에서 시행되는 강경·제술 시험과 節日製, 黃柑製의 우등자에게 내리는 賞典이었다. 조선전기에는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17세기 후반부터는 절일제에서 직부전시를 하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점차 관행화되었다.[9)]

성균관 課試에서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하는 경우는 숙종대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현종대 직부전시자는 15명에 그쳤으나 숙종대에는 132명, 연평균 3.0명으로 늘어나 전체 문과급제자의 9.3%(132명/1418명)를 차지하였다. 숙종대 직부전시를 하사한 시험은 황감제, 삼일제, 구일제, 유생전강이 대표적이었다.

이후 영조대에는 성균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생전강을 자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칠석제, 인일제 등에서도 직부전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문과급제자 중 직부전시자의 비율은 19.2%(407명/2124명)로 늘어났고, 연평균인원도 7.8명으로 증가하였다.

정조대에는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문과급제자의 33.3%(259명/777명)를 차지하였고, 연평균 인원은 11.0명이나 되었다. 춘도기와 추도기를 정례화하였을 뿐 아니라 선발인원을 2명으로 늘리고 성균관 유생이나 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제도 자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조대에는 문과급제자의 1/3이 직부전시 출신으로 식년시 급제자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9) 차미희, 앞의 책, 155-159면.

<표 1> 왕대별 直赴殿試者의 추이

구분 \ 왕대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문과급제자(A)	1,418	183	2,124	777	1,049	455	471	1,766	8,634
직부전시자(B)	132	4	407	259	199	106	139	685	1,946
B/A	9.3%	2.2%	19.2%	33.3%	19.0%	23.3%	29.5%	38.8%	22.5%
연평균	3.0명	1.0명	7.8명	11.0명	5.9명	7.1명	9.8명	22.0명	8.9명

전거 : 『국조문과방목』,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19세기에 들어서도 성균관 과시와 직부전시 하사는 꾸준히 실시되었다. 하지만 순조대에는 시험의 종류를 제한하여 성균관 유생의 春到記·秋到記 각 2명, 黃柑製 1명에게만 직부전시 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시행을 억제하였다. 정조대 후반 직부전시 사여가 과다했던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이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부전시자의 연평균 인원은 순조대 5.9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비율도 19.3%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헌종대는 연평균 7.1명에 23.3%, 철종대는 연평균 9.8명에 비율은 29.1%로 늘어났다. 그리고 고종대에는 연평균 22.0명에 38.6%로 그 비중이 급등하였다.

순조대의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한 시험은 춘도기와 추도기, 황감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왕의 행차에 참여한 參班儒生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신설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어 헌종대에는 일차유생전강, 철종대에는 절일제와 응제의 직부전시 하사가 다시 늘어났다. 고종대에는 璿派儒生應製와 館學儒生應製가 정례화되고 日次儒生殿講의 직부전시 하사도 정례화되어 직부전시자의 비중이 급등하였다. 그 결과 고종대에는 식년시보다 많은 인원이 과시를 통해 선발되어 과시가 과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성균관 과시는 원래 성균관 거재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영조대에 절일제는 원점 30點을 채운 자, 殿講이나 春到記, 秋到記 등은 당시의 거재 유생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通方外'라고 하여 성균관 거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생들의 응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과거 날짜를 전후하여 거자들을 위무하는 차원에서 과거와 절일제를 연이어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성균관 과시가 일반 유생에게 개방되고 직부전시 하사가 늘어나면서 문과는 일반 문과와 課試로 이원화되었다.

직부전시자는 정원 외 선발로 원래는 식년시 전시에 응시하고 식년시 방목에 이

름을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직부전시자가 늘어나면서 증광시, 정시, 별시 등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직부전시자는 방목 상에서는 여러 시종으로 흩어져 이름이 올라 있다. 하지만 급제의 과정이 일반 문과와는 달랐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부전시 하사 외에도 과거 자체가 은사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인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경우다. 이 중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외방별과를 제외한 경우로는 영조대의 耆老科, 忠良科, 求賢科, 完慶科 등이 있었다.

19세기에는 이 중 耆老科만이 시행되었다. 耆老科는 특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만 응시하도록 제한한 시험이다. 영조 32년(1756) 숙종비 仁元王后의 칠순을 기념하여 庭試로 처음 시행한 이래 영조의 칠순, 기로연 등을 계기로 庭試나 儒生製述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이후 한동안 시행되지 않던 기로과는 철종 5년(1854) 순조비 純元王后의 생일을 기념하여 다시 시행되었고, 고종대에는 익종비 神貞王后의 칠순, 81세, 83세를 기념하여 세 차례 더 시행되었다. 생원·진사시의 경우 철종 10년(1859) 초시에 합격한 70세 이상 노인은 모두 회시에 합격시키는 조처가 내렸는데,[10] 이후 생원·진사시 회시에서는 70세 혹은 80세 이상 노인은 모두 합격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고종 즉위 후 과거 시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璿派를 대상으로 하는 宗科나 璿派儒生應製를 자주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선파유생응제는 고종 1년(1864) 처음 시작된 후 고종 9년(1872)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종 4년(1867) 『선원속보』를 완성한 후에는 특별히 宗科를 시행하여 5명을 선발하였다. 이 시험에는 무려 32,585명이 응시하였다. 이외 고종 초반에는 생원·진사시에서 병인양요 때 조력한 宗親들을 모두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11] 선파유생응제나 종과는 선파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고 한 대원군 집권기의 산물로 고종 친정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고종 친정 후 두드러진 恩賜는 왕세자(純宗, 1874-1926)와 관련된 것이다. 고종은 특별히 왕세자의 생일인 2월 8일을 기념하여 매년 應製를 실시하였으며, 고종 30년·고종 31년(1893·1894)에는 왕세자와 동갑인 갑술생을 위한 응제를 따로 설

10) 『崇禎紀元後四己未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1) 『崇禎紀元後四丁卯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원군 집권기 과거 설행 양상에 대해서는 성대경, 앞의 글.

행하기도 하였다. 또 생원·진사시의 경우 고종 19년(1882)부터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 관원들의 아들, 손자, 동생, 조카 등으로 회시에 응시한 경우 모두 합격시키도록 하였고,[12] 고종 26년(1888)부터는 세자와 동갑인 경우는 모두 합격시키도록 하였다.[13]

기로과나 宗科, 왕세자 同庚과 같은 은사과는 시행 횟수나 선발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로과는 노인에게 영예직을 하사하는 것으로 관료 선발의 의미가 없었으며, 宗科나 同庚 응제는 선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 문과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문과가 완전 경쟁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어지는 가운데 특정한 집단에만 특혜를 하사하는 것은 스스로 과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었다. 그나마 문과의 경우는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생원·진사시의 경우 原榜보다 恩賜者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은사가 남발되었다. 이것은 국가에서 스스로 과거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3. 문과 응시 경향

1) 鄕試 응시 추이

조선시대 문과는 시험 종류가 다양하지만 시험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서 치르는 초시인 鄕試가 있는 시험과 서울에서만 치르는 시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울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왕복 여행과 체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방 출신이 京試에 응시하는 데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랐다.

향시가 있는 시험은 식년시와 증광시가 있는데, 정시의 경우에도 헌종 10년(1844) 향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중 가장 응시자가 많은 시험은 식년시·증광시 생원·진사시였다. 그러므로 먼저 생원·진사시 응시자 수를 통해 전체 과거 응시 인원과 응시 경향을 추론해 보고 이와 비교하며 문과 향시의 응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崇禎紀元後四壬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3) 『崇禎紀元後五戊子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표 2> 19세기 생원·진사시 鄕試 응시자 수(명)

試所 \ 試種 / 연도		식년시		증광시	
		진사	생원	진사	생원
경상좌도	1842	8,236	4,613		
	1872	14,997	9,878		
전라우도	1845	7,609	4,012		
	1854	7,892	5,050		
	1885			2,200	1,100
	1887	2,530	1,503		
충청우도	1813			5,651	3,875
	1844			2,540	2,290
	1845	2,140	1,828		
평안남도	1842	6,021	4,620		
	1848			6,416	4,694
	1858	6,516	4,691		
	1859			4,651	3,371
	1864			6,191	4,120
	1865	5,633	4,520		
	1866	4,302	3,107		
	1869	3,440	3,105		
	1884	3,231	3,042		
평안북도	1822	1,905	1,103		
	1835			2,370	1,615
	1848	2,522	1,625		
함경남도	1864			3,091	2,650
	1865	6,371	6,120		
	1879	3,512	5,490		
함경북도	1864			2,500	1,702
	1865	3,011	2,020		
황해도	1834	6,421	6,750		
	1839	4,211	3,570		
	1845	4,811	3,725		
	1848	4,745	3,529		
	1850			8,550	5,862
	1866	7,375	6,711		

* 전거 『각사등록』 각도편

생원·진사시 초시는 한성시와 도별로 시행하는 향시로 나뉘어져 있었다. 향시의 경우 황해도와 강원도는 한 곳에서, 다른 도는 좌우도 혹은 남북도로 나누어 2

개 시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초장과 종장 시험이 있는데, 초장은 진사시, 종장은 생원시였다. 생원·진사시 초시는 각각 700명을 선발하였으며, 시소별 선발인원은 도별로 달라 가장 많은 한성시는 2개의 시소에서 100명, 다음의 경상도는 2개 시소에서 50명씩을 선발하였고, 가장 적은 함경도는 시소별로 17명·18명을 선발하였다.

19세기 생원·진사시 응시자 수는 시험마다 크게 달랐다.(<표 2> 참조). 적게는 2,000-3,000명에 그친 경우도 있고, 많게는 7,000-8,000명이 몰린 경우도 있었다. 184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경상좌도(1842) 8,236명(진사)-4,613명(생원), 전라우도(1845) 7,609명(진사)-4,012명(생원), 평안남도(1845) 6,021명(진사)-4,620명(생원) 순으로 지역별로는 다른지역에 비해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의 응시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충청우도(1845)는 2,140명(진사)-1,828명(생원), 황해도(1845)는 4,811명(진사)-3,725명(생원)으로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적은 편이다. 그 가운데 특히 충청도 응시자가 적은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이 특정 시험의 문제인지 일반적인 경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14] 한성시의 경우 1840년대의 응시 인원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순조 9년(1809) 2소 초장 응시인원이 26,000여명이었다.[15] 이를 토대로 1840년대 서울과 8도 응시자수를 추산하면 대략 13만명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가 과거 응시 의사를 가진 층이었을 것이다. 이로 추산되는 경쟁률은 대략 90:1정도이다.

19세기 생원·진사시 응시자 수는 17세기와 비교해 보면 크게 늘어났다. 경상좌도의 경우 인조 4년(1626) 응시자수는 1,400여명이었으나 헌종 8년(1842) 진사시 응시자 수는 8,236명으로 200여년 사이에 5-6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성시 1개 시소의 응시자는 인조 4년 2,000여명 이었으나 순조 9년 26,000명 정도로 10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인구 증가와 무관한 것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층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향시와 한성시 응시자 수를 비교해 보면 향시보다는 한성시 응시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역시 서울의 인구 증가를 상회하는 것은 지방 유생들이 한성시에 응시하는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런데, 숙종 33년(1707)의 한성시 응시자 수를 보면 1소가 4,803명 2소가 6,387

14) 충청우도의 생원·진사시 응시자 수는 순조 13년(1813)과 헌종 10년(1844)·헌종 11년(1845)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순조 13년 증광시 응시자는 5,651명(진사)-3,875명(생원)이지만 헌종 10년에는 2,540명(진사)-2,290명(생원), 헌종 11년에는 2,140명(진사)-1,828명(생원)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15) 『일성록』 기사(1809) 9월 26일(계미)

명으로 전체 응시자는 11,190명, 시소당 평균 응시자는 5,595명이다. 이것은 인조대에 비해 2-3배 늘어난 수치다.[16] 하지만 순조대에는 1개 시소의 응시자가 26,000명으로 숙종대 응시자의 4-5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지방 유생들의 한성시 응시 경향은 18세기에 보다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내에서의 증감 여부는 19세기 전반의 자료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1840년대 이후에는 고종 9년(1872) 경상좌도, 고종 3년(1866) 황해도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고종 17년(1880)을 전후로 응시자가 급감하는 경향도 보인다. 전라우도(1885), 평안남도(1884), 함경남도(1879)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과거 응시자 수는 시험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수의 자료로 전체적인 경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기적인 공통성으로 미루어 볼 때 1840년대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880년대에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식년시와 증광시의 응시자 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진사시 응시자가 생원시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 비율은 평균 1.37배였다. 經書보다는 詩·賦를 짓는 詞章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별 평균비율은 전라우도 1.79배, 경상좌도 1.65배, 평안북도 1.58배, 함경북도 1.48배 등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경상좌도의 경우다.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진사보다 생원시 합격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응시자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사시 응시자가 훨씬 많았다.[17]

이상 생원·진사시 응시 경향을 보면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과거 응시층이 확대되어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19세기에는 점진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1880년대에는 급격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18세기 이래 지방 출신의 한성시 응시 경향이 확산되어 향시보다는 한성시 응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19세기 향시 응시자의 감소가 응시자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유생들의 한성시 응시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19세기 전시기를 통하여 생원시보다는 진사시 응시자가 많아 詩·賦를 제술하는 詞章 시험이 훨씬 선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이하 17세기 과거 응시자 수는 박현순, 2009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참조.

17) 崔珍玉, 1998『朝鮮時代 生員進士 硏究』, 集文堂, 179-184면.

<표 3> 19세기 문과 鄕試 응시자 수(명)

試所 \ 試種 / 연도		식년시			증광시			정시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경상우도	1842	48	48	48				
	1872	25	25	25				
경상좌도	1842	39	39	39				
	1872	23	23	23				
전라도	1845	87	72	48				
	1887	50	32	30				
전라우도	1854	52	29	20				
	1885				23	22	23	
충청도	1845	20	42	37				
	1853							1,540
	1855							1,405
충청우도	1844				151	411	280	
평안남도	1842	75	38	23				
	1848				672	686	653	
	1859				170	115	106	
평안도	1845							2,110
	1853							2,110
	1858	115	87	57				5,130
	1864				270	215	160	
	1865	157						
	1869	110	85	56				
평안북도	1822	48	48	28				
	1835				928	615	350	
	1848	76	61	24				
	1866	113	85	57				
함경남도	1864				567	592	579	
	1865	188	220	35				
황해도	1834	21	19	18				
	1839	16	15	11				
	1845	22	21	10				
	1848	43	41	3				
	1850				572	1,330	320	
	1866	14	28	10				

* 전거 『각사등록』 각도편

식년시 문과 초시 선발인원은 館試 50명, 한성부 40명을 제외한 150명을 향시로 선발하였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경상좌우도가 각 15명, 가장 적은 함경남북도는

각 5명을 선발하였다.

생원·진사시는 四書五經과 詩·賦를 시험하는데 그쳤지만 문과는 이를 기본으로 폭넓게 文史哲을 섭렵한 위에 論·表·策 등 보다 고급 문장을 제술해야 했다. 그러므로 문과 응시에는 생원·진사시에 비하여 더 많은 시일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고, 더 많은 재능도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문과 초시는 생원·진사시에 비하여 항상 응시 인원이 적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식년시·증광시 문과 향시 응시자 수는 생원·진사시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식년시 응시자 수는 평안도·함경도의 몇몇 예를 제외하면 모두 수십 명에 불과하였고, 증광시도 많아야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생원·진사시에 수천 명이 몰린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생원·진사시와 달리 식년시와 증광시 응시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식년시의 경우 비교가 가능한 평안남도의 사례를 보면 헌종 8년(1842) 진사시 응시자는 6,021명이었으나 문과 응시자는 75명이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응시 인원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동일 식년의 자료가 남아 있는 12사례의 초장 응시인원을 비교해 보면 식년시 문과 응시자는 생원·진사시 응시자의 1.1%(617명/75,507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숙종대 한성시의 응시 인원을 보면 이와는 자못 양상이 달랐다. 즉, 숙종 9년(1683) 증광시와 숙종 33년(1707) 식년시 생원·진사시 응시자는 각각 11,295명, 11,190명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이인 숙종 16년(1690) 식년시 문과 응시자는 2,400여명으로 생원·진사시 응시자의 1/4정도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생원·진사시 응시자가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식년 문과 응시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광시의 경우 헌종 14년(1848) 평안남도 사례를 보면 진사시 응시자는 6,416명인데, 문과 응시자 수는 686명이다. 동일한 시험의 응시자 수가 확인되는 여섯 사례를 종합하면 문과 응시자는 생원·진사시 응시자의 12.2%(3,083명/29,818명)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1.1%인 식년시의 10배를 넘는 비율로 식년시보다는 증광시 응시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년시와 증광시 문과는 시험 과목 및 절차가 거의 동일하며 식년시는 회시에 講經이 더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강경이 사실상 식년시 회시의 당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두 시험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즉 식년시는 강경 위주, 증광시는 제술 위주의 시험이 된 것이다.

식년시 강경은 17세기 이래 맹목적인 암송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

으며, 18세기 이후로는 식년시를 폄하하여 明經科라고 부르기도 하였다.[18] 그 가운데 서울의 명문가 자제들은 아예 응시를 기피하여 식년시는 지방사족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하지만 식년시 급제자들은 인사에서 차별을 받아 청요직 인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에 비해 증광시는 상대적으로 경화사족들의 합격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18세기 이래 식년시 강경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지방 사족들도 식년시 응시를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사족이 많은 삼남지방보다 사족이 적은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오히려 식년시 응시자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정시 초시 응시자는 1,000명 이상으로 생원·진사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식년시나 증광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다. 정시와 식년시·증광시 문과 응시자 수의 차이는 시험의 절차 및 과목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즉, 식년시와 증광시 초시는 3장의 시험으로 각기 四書의 疑義, 賦·表·論, 策의 시험을 치렀다. 이에 비해 정시 초시는 한차례 시험에서 賦, 表 중 한편만 제술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식년시·증광시에 비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이 정시 응시자 수가 많았던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시종별로 응시자 수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17세기에도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식년시·증광시·별시 문과는 응시자 증가가 미미한 반면 생원·진사시와 庭試·謁聖試·春塘臺試처럼 1회로 당락이 결정되는 친림시 응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9] 이런 경향은 그 후 더욱 증폭되어 오히려 식년시·증광시 응시자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식년시와 증광시는 初場·中場·終場의 응시인원도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와 평안도는 초장 응시인원이 많고 충청도 함경도 황해도는 중장 응시인원이 많았다. 식년시·증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초장은 四書疑義나 論, 중장은 賦나 表·箋 중 1편, 종장은 對策이었다. 따라서 초장의 선호나 중장의 선호는 經學과 詞章에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원시나 진사시에 대한 선호와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상 19세기 향시 응시자 수를 보면 시험 절차가 간단하고 詞章을 시험하는 정시 응시자가 가장 많았고, 강경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년시는 응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식년시 응시가 저조한 것은 明經科와 製述科의 분화가

18) 17세기 식년시 회시 講經을 둘러싼 논란은 차미희, 앞의 책, 112-126면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9) 박현순, 앞의 글.

심화되어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인사를 선발한다는 선초의 이상이 의미를 상실하고 詞章 위주로 선발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친림시 응시 추이

서울에서만 치르는 시험은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가 있었다. 별시는 초시가 있는 시험으로 18세기 이래 시행횟수가 많지 않았다.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는 국왕이 친림하는 친림시로 시험절차나 과목이 동일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정시가 가장 자주 시행되었다. 정시는 영조 19년(1743) 초시제도를 도입하여 초시가 있는 정시와 초시가 없는 친림정시로 나뉘어 시행되다가 헌종 10년(1844)부터 향시를 도입하였다.[20] 그러나 19세기까지도 친림정시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시는 원래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생정시에서 기원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정식 과거로 제도화되었다. 인조대 응시자 수는 1,500-3,000명 정도였으나 숙종대에는 응시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거의 만명에 이른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처럼 빠른 증가를 보인 것은 식년시나 증광시와 달리 1회의 제술시험만 시행하기 때문에 응시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역시 친림시로 시험 절차나 과목이 동일한 알성시나 춘당대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영조대에는 특히 정시를 자주 시행하여 재위 52년 동안 모두 50회(초시 시행 16회)의 정시를 실시하여 707명(원방 617)을 선발하였다. 이 인원은 770명(원방 561)을 선발한 식년시에 맞먹는 인원이었으며, 직부전시자를 제외한 原榜 출신자는 식년시보다 더 많았다. 나아가 문과 급제자의 인사에서 식년시 출신자들은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조대 문과에서 중심을 차지한 것은 정시였다. 그 가운데 응시자 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되는 경우 중 응시 인원이 가장 적은 해는 영조 29년(1753)으로 9,000명 정도이며, 가장 많은 해는 영조 47년(1771)으로 14,670명이었다.[21]

정조는 영조대에 과거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인사 적체가 유발되고 科場이 문란해졌다는 인식 하에 경과의 시행을 자제하였다. 그 결과 재위 20년 동안 12회(초시 시행 7회)의 정시만을 시행하여 178명(원방 85명)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알성시를 7회나 시행하였기 때문에 친림시의 절대적인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

20) 『헌종실록』 권11, 헌종 10년 12월 11일(계묘)
21)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0월 17일(무술) ; 영조 47년 10월 27일(갑오)

정조대 12회의 정시 중 응시인원을 확인한 것은 모두 5회인데, 정조 8년 정시초시는 12,203명, 같은 해 친림정시는 17,914명, 정조 18년(1794) 정시초시는 23,900명, 정조 19년(1795) 정시초시는 21,605명, 정조 24년(1800) 정시초시는 111,838명이 응시하였다.[22] 전체적으로 보면 응시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정조 24년에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한편 알성시 응시자 수는 정조 18년(1794)에 78,719명, 정조 21년(1799)에는 57,393명으로 정시보다 높았다.[23] 가령 정조 18년에는 2월 22일에 정시초시를, 4일 후인 2월 26일에 알성시를 실시하였는데, 정시초시에는 23,900여명, 알성시에는 78,719명이 응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초시가 있는 정시보다 알성시를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정시초시보다는 알성시 응시자 수가 정조대 후반 친림시 응시자 수에 가까울 것이다.

정조대의 정시 응시 인원은 12,203명에서 111,838명으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이 중 특히 응시자가 많았던 정조 24년 정시초시와 정조 18년 알성시의 경우 다른 시험들에 비해 특별히 응시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었다.

정조 24년의 정시는 왕세자의 책봉을 기념하는 정시로 3월 21일 정시 초시, 3월 22일 인일제를 연달아 시행하였는데, 정시 초시 응시자는 111,838명, 인일제 응시자는 103,579명이었다. 이처럼 전대미문의 응시자가 몰린 데에는 왕세자 책봉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의 시험을 연이어 배치하여 유생들의 응시를 유도한 측면도 있다.

정조 18년 알성시 역시 2월 21일 삼일제, 2월 25일 정순왕후 오순과 혜경궁 홍씨의 육순을 기념하는 정시에 이어 2월 26일에 시행되었다. 조정에서 세 번의 시험에 연이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정시·알성시와 성균관의 절일제를 함께 시행하는 양상은 정조대, 특히 정조 8년(1784) 이후 과거 시행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정조 8년부터 정조 24년까지 모두 23회의 과거를 시행하였는데, 이 중 10회의 시험이 절일제와 병행되었다. 명분은 上京하는 유생들을 위무한다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지방 유생들의 상경을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지방 유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京鄕을 구분하여 급제자를 선발하는 방식도 도입하였기 때문에[24] 지

22) 『正祖甲辰王世子冊封慶龍虎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일성록』 갑인(1794) 2월 22일(경진), 을묘(1795) 8월 28일(병오), 경신(1800) 3월 21일(계유).
23) 『일성록』 갑인(1794) 2월 26일(갑신), 기미(1799) 9월 30일(을유)
24)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2월 20일(무인)

방 유생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응시 인원은 시험 때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응시자가 많은 경우는 특정한 계기가 개입된 특수한 사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몇몇 사례로 전체 경향을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과 절일제 병행 추이를 보면 정조대에는 영조대에 비하여 응시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조말부터 과거 응시 계층을 확대시키는 조치도 있었다. 영조 49년(1773) 서얼들의 儒生案 序齒入錄을 허용하고, 정조 1년(1777)에는 서얼의 관직 진출을 확대하는 庶類疏通節目을 반포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조정과 지방에서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 정조 2년(1778) 삼남의 서얼들이 향교나 서원에서 서얼들에 대한 防塞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상소하여 사족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5] 그러나 역으로 국왕의 하교에 따라 유생안을 수정한 사례도 확인된다.

서얼들의 유생안 서치 입록이나 서류소통절목은 직접적으로 서얼의 유생안 입록을 확대하는 조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생안은 수령이 작성하는 科擧都目의 일차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유생안에서 서얼에 대한 차별을 약화시키는 조처는 곧 서얼의 유생안 입록을 확대시키고 서얼들의 과거 응시 욕구를 자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생안의 개정은 서얼뿐 아니라 그동안 향교에서 배제되었던 층에도 참여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영조 49년(1773) 상주향교에서 작성안 「儒案節目」을 보면 鄕案舊家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당초에 양반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初無班脈者]' 외에는 才行을 갖춘 자라면 모두 입록을 허용하였다.[26] 따라서 서얼 외에도 향교에서 배제되었던 계층들이 유생안에 입록되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7] 이러한 변화가 정조대 과거 응시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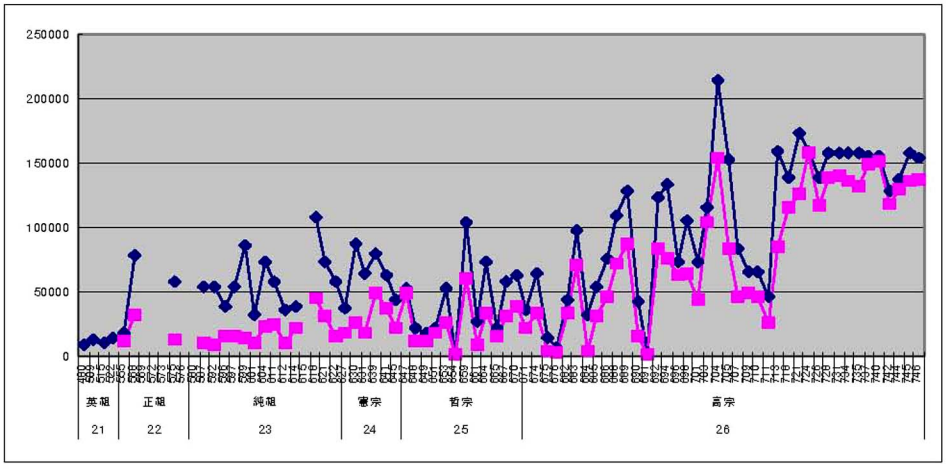
---

25)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1월 25일(을묘) ;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3월 21일(정해) ; 『정조실록』 권6, 정조 2년 8월 1일(무오)

26) 『경북지방향교자료집성』 III. 상주향교 「儒案節目」(1773)

27) 17세기 교생안의 입록 범위가 축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확인되는 양상은 경상도 예안현의 교생안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현전하는 향교 교생안은 대부분 17-18세기에 작성된 것이며, 19세기 교생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朝令으로 교생안의 입록 제한이 철폐되며 오히려 교생안 자체가 파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9세기 교생안이 남아 있는 영양향교의 경우에도 제명을 '副校案'이라하여 '교안'과 구분하여 조령에 대한 사족층의 반발을 엿볼 수 있다. 박현순, 2007 「17-18세기 禮安縣 士族社會와 鄕案·院生案·校生案」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 전거 : 『승정원일기』, 『일성록』



<그림 3> 19세기 친림시의 입문 수와 수권 수 추이

19세기 정시·알성시 응시자 수[入門數]도 시험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가장 많았던 해는 고종 16년 정시로 213,500명이 응시하였고, 가장 적었던 해는 고종 3년 알성시로 6,835명이 응시하였는데, 두 해의 응시자는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순조·헌종대, 철종대, 고종대의 세 시기로 나뉘어 경향이 달라진다.

<표 4> 19세기 친림시의 입문수 분포(회)

왕대 / 입문수	純祖	憲宗	哲宗	高宗	합계
−10,000				1	1
−25,000			4	1	5
−50,000	5	2	1	4	12
−75,000	7	2	5	6	20
−100,000	1	2		3	6
−125,000	1		1	4	6
−150,000				6	6
−175,000				12	12
175,000−				1	1
합계	14	6	11	38	69

* 전거 : 『승정원일기』, 『일성록』

<표 5> 19세기 친림시의 입문수 분포(회)

구분 / 국왕	사례(회)	입문(명)	수권(장)	수권비율
純祖	14	56,121	18,305	33.4%
憲宗	6	62,363	28,390	46.3%
哲宗	11	46,652	27,430	60.0%
高宗	38	110,683	84,733	71.3%
합계	69	85,203	57,220	59.6%

* 전거 : 『승정원일기』, 『일성록』

우선 순조·헌종대에는 10만명을 상회한 경우도 있으나 <표 4>에서 보듯이 응시자 수가 대개 25,000명에서 75,000명 사이였다. <표 5>에서 확인되는 응시자 수 평균은 순조대 56,121명, 헌종대 62,363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보듯 추세상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정조대 후반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특별한 증감이 없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철종대에는 10,000명-25,000명, 50,000명-75,000명으로 경향이 나누어지는데, 평균 입문수는 46,652명으로 응시자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어 고종대에는 <그림 3>에서 보듯 1870년대와 18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응시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15만명 정도로 거의 고정되었다.

앞에서 1840년대 생원·진사시 응시자를 13만명 전후로 추산한 데 비추어 보면 순조-철종대까지는 대략 그 1/3 내지 1/2 정도가 문과 정시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에서 응시하는 식년시나 증광시, 정시 향시보다도 상경해야 하는 친림시 응시 비율이 더욱 높았던 것이다.

한편 1880년대에 응시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같은 시기 생원·진사시 향시 응시자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대비된다. 이것이 생원·진사시보다도 정시를 선호한 결과인지 아니면 생원·진사시도 한성시를 선호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생원·진사시 한성시 응시 인원이 확인되면 이 문제를 좀 더 고찰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제출된 답안 수[收券數]는 반드시 응시자 수와 비례하지는 않았다. 수권수 역시 시험에 따라 등락이 컸다. 그런데, <그림 3>에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순조-철종대까지는 응시자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1-5만장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28] 이 추세가 제술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실

질적인 응시자였을 것이다. 평균 수권 비율은 순조대 33.4%에서 헌종대 46.3%, 철종대 60.0%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응시자 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수권 비율은 그만큼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虛數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시자가 늘어나면 국가의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행위의 여지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錄名에서부터 고시까지 각 절차의 관리를 강화하여 요행이나 부정 합격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응시자 수를 제어해 왔다.[29]

19세기에도 응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순조 17년 정시 때 응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후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수립되었다. 순조 19년(1819) 5월에는 영조 35년(1759) 科弊綸音을 원용하여 증광시와 정시 회시 전의 一經講을 복구하고 정시를 연 1회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30] 이어 순조 20년(1820) 7월 庭試節目에서는 감시의 조흘첩을 모방하여 정시 응시자에게 거주지에서 入門帖을 발급해 주는 새 제도를 도입하였다.[31] 입문첩제도는 응시자 수를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여 이해 정시는 3개 시소 중 1개를 폐지할 만큼 응시자 수가 줄어들었다.[32] 그러나 그 이후의 입문수를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종대에는 헌종 10년(1844)에 정시의 초시를 경외로 나누어 시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33] 시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유생들이 상경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시 선발인원을 지역별로 할당함으로써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철종 14년(1863)까지 20년 동안 시행된 정시 19회 중 초시 시행이 확인되는 것은 5회 뿐이기 때문에 향시 제도의 도입도 정시의 응시 경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경향 속에서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우선 철종대 응시자의 감소 현상

---

28) 10년단위의 평균 수권 비율을 보면 1800년대 28.1%, 1810년대 29.5%, 1820년대 39.54%, 1830년대 35.8%, 1840년대 56.8%, 1850년대 59.0%, 1860년대 57.2%이다.

29) 차미희, 1996「조선 후기 文科제도 : 응시자격을 중심으로」『사총』45 ; 박현순, 2009「17세기 科擧 관리의 정비 : 응시자 증가와 관련하여」『조선시대사학보』49, 조선시대사학회.

30) 『일성록』 기묘(1819) 5월 15일(을해)

31) 『일성록』 경진(1820) 7월 11일(을축)

32) 『일성록』 정축(1817) 9월 11일(임자), 경진(1820) 8월 25일(무신)

33) 『헌종실록』 권11, 헌종 10년 12월 11일(계묘) ; 『일성록』 갑진(1844) 11월 10일(계유), 갑진(1844) 12월 4일(갑진)

이다. 그러나 감소를 가져온 뚜렷한 원인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국가에서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과도한 응시를 제한한 경우다.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의 악화 등 응시 환경의 변화로 개인들이 상경 응시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이다. 임술민란으로 이르는 과정을 염두에 두면 정황적으로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단지 철종대 친림시 응시자가 감소하였다는 사실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한편 고종대에는 응시자 증가와 더불어 답안 제출도 늘어나 1870년대에는 대략 4만-9만명 정도, 1880년대 이후에는 11만-14만장 정도의 답안이 제출되었다. 평균 수권비율은 고종대 전체는 71.3%인데, 1860년대는 57.2%, 1870년대는 65.5%, 1880년대는 78.1%, 1890년대는 90.6%로 응시자 증가와 더불어 수권비율도 높아졌다.

철종 이전의 경향을 염두에 둔다면 고종대에 과거 응시자가 급증하는 양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변화가 단 기간에 걸쳐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자격 제한이 완화되는 변화로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표적인 제도가 監試의 조흘첩이었다. 조흘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조흘첩을 발급하여 응시 자격을 주고 과장에 들어갈 때 이를 징표로 삼도록 한 것이다. 조흘강은 원래 시험 전 과장에서 실시하였으나 정조대 이후 각군현에서 조흘강을 시행하면서 照訖帖 자체가 남발되고 매매되는 양상이 나타나 조흘강의 효과도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전하는 조흘첩 중에 空名 상태의 조흘첩이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종 11년(1874) 고종 친정 이후에는 조흘첩의 매매가 사라질 정도로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다고 黃玹은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즈음에는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34] 이런 양상은 書院의 혁파로 양반 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양반들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870년대 이후 응시자의 급증과 더불어 답안을 제출하는 비율도 함께 급등하는

34) 黃玹, 『매천야록』 권1 갑오이전 戊寅 "… 舊制每式年 守宰招邑子之赴初試者 講小學書 簽其通者 始許赴謂之照訖講 又錄其年齡鄕貫及通講許赴之由 雕印成帖 給作憑驗 及入場也 系帖于纓 官坐門 首考帖以入之 無者拒 會試則前期五日 成均館官 招八道之領解者而試講之 依上法 人給一帖 無者亦拒 然赴初試者無拘限 故得以闖狹 入會試者有定額 故禁最嚴 一被講黜 則抱白券而退 且雖得帖 一帖只一人 其餘莫得入 於是訪貧而無文者 而買其帖 言一帖一座也 乃以原有之帖 并其所買之座 巨擘·寫手冒入焉 使塡兩券 一以呈己名 一以酬賣者 此風之行 亦百年以來也 及今上甲戌以後 弊日以極 買座亦發 闌入無禁 賣酒賣糖 幾半靑衿, 丙戌 …"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 시기부터 과거제 자체가 형해화되어 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권율의 상승은 학력의 상승보다는 과장 관리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고종 7년(1870) 정시와 고종 9년(1872) 알성시에서 파격적으로 詩를 시제로 출제하였다는 점이다.[35] 詩는 진사시 과목으로 사대부층의 보편적인 교양과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출제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9세기 정시 응시자의 추이는 순조-철종대와 고종대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순조-철종대에는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권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조대의 연장선에서 실질적인 응시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양상이었다. 반면 고종대에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걸쳐 두 차례 응시자가 급증하며, 수권율도 함께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고종대에 이르러 전통적으로 과거 응시를 제약하던 조건들이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된다.

3) 朴得寧(1808~1886)의 과거 응시

앞에서 살펴본 19세기 과거 응시자 수의 추이를 보면 생원·진사시와 정시·알성시 등 친림시에 응시자가 몰린 반면 식년시나 증광시 문과 응시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런 양상이 개인들의 응시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박득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박득녕은 경상도 예천에 거주한 사족으로 과거에 응시한 시기는 27세이던 순조 34년(1834)부터 54세가 되는 철종 12년(1861)까지다. 그는 인근의 사족이나 형, 조카 등과 같이 과거를 보러 다녔는데, 후반에는 아들 朴周大(1836-1912)도 과거 행렬에 참여하여 부자가 동시에 과거에 응시하였다. 늦게까지 과거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부자가 같이 과거를 보러 가는 일은 18세기 이래 매우 흔한 일이었다.[36]

박득녕이 과거에 응시한 이력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35) 『국조문과방목』(태학사 간)

36) 權相一의 『淸臺日記』, 黃胤錫의 『頤齋亂藁』에서도 부자가 함께 과거에 응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표 6> 朴得寧(1808~1886)의 과거 응시

연도	국왕	재위	나이	응시 지역	과거							절일제				공도회	합계
					式年 사마	식년 문과	增廣 사마	증광 문과	庭試	謁聖試	別試	인일제	삼일제	칠석제	구일제		
1834	純祖	34	27	대구	2/18	-1										9/25	2
1835	憲宗	1	28	x			-1	-1			-1						0
1836		2	29	x					-1								0
1837		3	30	서울	-1	-1			8/28						9/1		2
1838		4	31	서울					4/17	4/21			4/19			9/25	5
1839		5	32	서울	8/27	-1			-1						9/1	9/25	3
1840		6	33	서울 안동	*2/18											9/26	1*1
1841		7	34	서울					윤2/3				윤3/15			9/27	3
1842		8	35	서울	8/20	-1								8/23			2
1843		9	36														0
1844		10	37	대구 안동 /대구			2/21	-1								11/3 *11/24	2*1
1845		11	38	서울	8/19	-1			-1					8/22			2
1846		12	39						-1								0
1847		13	40	서울					2/26								1
1848		14	41	서울 /대구	8/28	-1	3/20	-1	-1								2
1849		15	42						-1								0
1850	哲宗	1	43	서울			2/19	-1									1
1851	哲宗	2	44	안동	윤8/7	-1			-2	-1						9/25 *10/6	2*1
1852	哲宗	3	45	서울					10/15						10/16		2
1853	哲宗	4	46						-1								0
1854	哲宗	5	47	서울	8/19	-1			2/27			2/24	2/28		8/22	9/25	6
1855	哲宗	6	48						-1								0
1856	哲宗	7	49								-1						0
1857	哲宗	8	50	서울					4/9				4/11				2
1858	哲宗	9	51	서울	8/10	-1			-2					8/13			2
1859	哲宗	10	52	서울			1/19	-1									1
1860	哲宗	11	53						-1								0
1861	哲宗	12	54	대구 /서울	2/18 *3/27	-1			4/1								2*1
과거 횟수					10	10	5	5	21	2	2						
응시 횟수					9 *2	0	4	0	8	1	0	1	5	3	4	8	44

*는 회시

-는 응시하지 않은 과거 횟수

박득녕은 28년동안 식년시 생원·진사시 9회, 증광시 생원·진사시 4회, 정시 9

회, 알성시 1회 등 총 23회의 과거에 응시하였다. 이외에도 성균관의 節日製에 13회, 각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公都會 8회 등에도 응시하였다. 성균관 절일제는 직부전시자격, 공도회는 사마시회시 직부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시험이었다. 이를 통틀면 박득녕이 시험에 응시한 횟수는 44회로 상중에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2회 정도의 시험을 본 셈이 된다.

이 기간에 시행된 과거와 비교해보면 박득녕은 생원·진사시는 거의 빠짐없이 응시하였고, 정시·알성시는 선별적으로 응시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예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박득녕은 생원·진사시와 정시를 중심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박득녕은 당초에는 어느 정도 학업이 성숙된 후에 식년시·증광시 문과에도 응시할 생각이었으나[37] 결국은 한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庭試 응시로 문과를 대체하였다.

정시는 18세기 이래 시제가 거의 賦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 나아가 賦는 진사시 과목이기도 하여 賦만 전문적으로 익히면 진사시와 정시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이에 비해 식년시와 증광시 초시는 四書疑義, 論, 賦, 表, 對策 등 다양한 과목을 출제하여 시험 준비에도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런 부담 때문에 박득녕은 식년시·증광시 문과를 포기한 것은 보인다. 이와 같은 행보가 19세기 식년시·증광시 문과 응시자가 극소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박득녕은 친림시는 선별적으로 응시하였다. 그가 과거에 응시한 기간 중 시행된 정시와 알성시는 23회였지만 박득녕은 정시 8회 알성시 1회, 총 9회만 응시하였다. 예천에서 서울까지는 대략 7-8일이 걸렸는데, 왕복 여정과 시험 응시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 여비와 서울 체류비 외에도 試紙의 구입,[38] 寫手의 고용 등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다.[39]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정시에 응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

37)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갑진(1844) 3월 22일 "東堂之意漸少却"

38) 試紙의 가격은 시험 종류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정시에 사용되는 정초지는 5전과 7전, 감시에 사용되는 초주지는 1냥 7천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유년(1837) 8월 27일 "買試紙二丈五戔式", 임인년(1842) 8월 16일 "求試紙二張 價則一兩七錢式", 무신년(1848) 8월 26일 "買試紙一張七戔式", 기미년(1859) 정월 3일 "又買試紙一筒 七兩五錢"

39) 박득녕이 寫手를 고용한 사례는 식년감시 때 한차례 확인되는데, 가격은 12냥이었다.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기해년(1839) 8월 23일 "是日募得寫手 則皆不合意 而其中書吏一筆 可書 執之" ; 8월 26일 "白所云書吏 以十二兩買之"

박득녕은 친림시 중에는 절일제가 병행되는 시험을 선호하였다. 그가 과거에 응시한 기간 중에 시행된 친림시 23회 중 14회는 2-3일 시차를 두고 절일제가 시행되었다. 박득녕이 응시한 9회의 친림시 중에서는 7회가 절일제와 함께 시행되었고, 1회는 식년시 회시와 함께 시행되었다. 순수하게 정시만 보러 상경한 경우는 1회 밖에 없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시 때마다 상경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 상경에 2회 이상의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박득녕은 식년시의 경우에도 경상도 향시보다는 漢城試를 선호하였다. 그는 모두 9회의 식년시에 응시하였는데, 이 중 7회를 서울에서 응시하였고, 2회는 대구에서 응시하였다. 예천에서 대구까지는 4-5일 일정이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경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한성시에 응시하였을까?

그 중요한 단서는 그가 응시한 식년시 사마시 9회 중 5회에는 절일제가 함께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응시 기간 중 시행된 식년시는 10회이며, 그중 6회에 절일제가 함께 실시되었고, 박득녕은 6회 중 5회의 절일제에 응시하였다. 박득녕은 한 번의 응시 기회를 더 얻게 위하여 식년시 사마시에서도 향시보다는 한성시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성시 응시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지방 유생들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정조대 성균관 절일제의 收券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향은 추산해 볼 수 있다.

절일제 수권의 지역별 분포는 정조 18년(1794) 칠일제, 정조 23년(1799) 칠일제, 정조 24년(1800) 인일제 등 세 시험의 기록이 확인된다.[40] 세 시험의 응시 인원은 20,739명, 37,953명, 103,579명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수권의 결과를 보면 응시 인원이 적은 정조 18년 칠일제는 서울과 경기 출신의 답안이 58.4%를 차지한 반면 응시자가 많은 정조 24년 인일제에는 18.1% 밖에 되지 않는다. 응시 인원이 많을수록 서울·경기 출신의 답안이 적은 대신 경상도·전라도 등 원거리 출신들의 답안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친림시 응시자는 서울과 그 주변지역 출신자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출신자들의 상경 여부에 따라 전체 응시 인원이 변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40) 『일성록』 갑인(1794) 8월 17일(신미), 기미(1799) 9월 27일(임오), 경신(1800) 3월 22일(갑술)

<표 7> 정조대 節日製 收券의 지역 분포

구분	지역	정조 18 (1794)	정조 23 (1799)	정조 24년 (1800)	합계
		칠일제 입문 20,739 수권 30.2%	칠일제 입문 37,953 수권 17.3%	인일제 입문 103,579 수권 31.7%	
수권수	경	1,511	1,220	2,211	4,942
	강원도	231	424	1,025	1,680
	경기도	2,137	1,200	3,586	6,923
	경상도	72	590	5,231	5,893
	전라도	65	470	4,703	5,238
	충청도	611	1,443	6,096	8,150
	평안도	623	260	3,173	4,056
	함경도	15	37	1,025	1,077
	황해도	440	603	3,111	4,154
	4도	548	325	1,024	1,897
	불명			766	766
	합계	6,253	6,572	31,951	44,776
비율	경	24.2%	18.6%	6.9%	11.0%
	강원도	3.7%	6.5%	3.2%	3.8%
	경기도	34.2%	18.3%	11.2%	15.5%
	경상도	1.2%	9.0%	16.4%	13.2%
	전라도	1.0%	7.2%	14.7%	11.7%
	충청도	9.8%	22.0%	19.1%	18.2%
	평안도	10.0%	4.0%	9.9%	9.1%
	함경도	0.2%	0.6%	3.2%	2.4%
	황해도	7.0%	9.2%	9.7%	9.3%
	4도	8.8%	4.9%	3.2%	4.2%
	불명	0.0%	0.0%	2.4%	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식년시 증광시 문과의 경우에도 한성시 응시자들은 대다수가 지방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2년(1865) 식년시 문과 한성시 1소방 합격자 60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평안도가 25명, 경상도가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 출신은 6명에 불과하였다.[41] 이것이 반드시 응시 경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

도 한성시 응시자의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서울 출신의 식년시 기피 경향과도 관련된 것이다. 반면 서울 유생들은 지방의 試官과 결탁하여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는 풍조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42]

이상 박득녕의 과거 응시 내용을 보면 생원·진사시와 정시를 주로 응시하였으며, 향시보다는 한성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상경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서울에서 시행되는 시험은 대개 절일제를 병행하여 더 많은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 문과의 선발 결과

19세기에는 이전시기보다 과거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하였다. 정조대부터 과거 시행을 자제하고 선발인원을 줄였지만 정조 후반에 응시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그 구조가 19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종대에는 과거를 자주 설행하기는 하였지만 응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쟁도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과거의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되었다. 박득녕 역시 과거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들을 토로하였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 "들으니 科榜이 모두 先正과 大家의 자손인 것이 전의 동당 복시와 같다."[1845 정시][43]
>
> "왕이 親臨하여 당일에 唱榜하였다. 京表 중에서 모두 뽑았는데 모두 城內 출신이고 한 사람만 전라도 사람이다."[1847년 정시][44]
>
> "대비전의 탄일 경사로 춘당대에서 널리 제술을 실시하여 급제 3인, 진사 3인, 대소 초시 3인씩을 뽑았다. 모두 성내의 縉紳家 출신이고 鄕儒는 한사람도 참여하지 못

41) 『漢城試原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2)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 윤4월 3일(을묘) "自夫咸聚京師之科頻設以來 鄕儒之躡赴京試 便自慣習 竝與分鄕試之科 而界分漸壞 任意踰越 元居鄕之儒 不赴本道之場 混處京試者極多" ;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2월 14일(경술) "且予從前聞之 京儒則干囑試官 牢約下鄕 鄕儒則輸財赴京 圖占倖科"

43)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을사년(1845) 2월 25일 "聞科榜皆是先正大家子孫 一如前者東堂覆試"

44)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정미년(1847) 2월 26일 "親臨當日唱榜 京表間皆用人皆城內 一人全羅道人"

했다고 한다."[1856년 별시][45]

"열사람을 뽑았는데, 영남 사람이 셋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 사람이라고 한다." [1857년 정시][46]

박득녕의 불만은 그 핵심이 급제가 서울 출신의 진신가에 편중되고 향유들은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박득녕 당대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黃胤錫의 일기에도 동일한 불만들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47] 그렇다면 그의 불만은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그의 기록을 문과방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내용이 일치한다. 그의 언급은 단순한 인상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시험에 대한 비판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과의 선발 결과가 서울 출신이나 권세가 자제에게 편중되었다는 비판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숙종대 이래 과거 결과를 둘러싸고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비판이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자.

과거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직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대부터다. 숙종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친림시를 자주 시행하였는데, 늘 급제자의 대부분이 '京華子弟'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정시 후에 지방 유생들을 위해 後庭試를 따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 表題가 지방 유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숙종대 말부터는 表 이외에 賦, 頌 등 다양한 試題를 돌아가며 출제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실제 송준호·와그너가 정리한 문과 급제자들의 거주지를 통계하면 숙종대 정시·알성시·춘당대시 등 친림시 원방 급제자의 81.8%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다.

영조대부터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 유생들을 위하여 정시 시제는 늘 賦로 출제하였고, 절일제 등에서 京表·鄕賦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1명씩을 뽑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친림시 원방 급제자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계속 하락하여 영조대 69.0%, 정

45)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병진년(1856) 5월 15일 "以大妃殿誕日之慶 設賡製於春塘 拔及第三人 進士三人 大小初試 各三人 皆城內縉紳家流 鄕儒一無所參云"

46)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정사(1857) 4월 초10일 "用十人 嶺人三 其他皆京人云"

47) 박현순, 2011 「정조대 서울·지방의 분화와 지방사족의 등용」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출판문화원, 174-182면.

조대 58.5%로 낮아졌다. 19세기에도 순조대 51.0%, 헌종대 36.4%, 철종대 35.1%, 고종대 26.0%로 그 비율이 계속 낮아졌다. 따라서 19세기 친림시에서는 더 이상 서울 편중 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문과 급제자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숙종대 46.9%, 영조대 46.3%에서 정조대 33.8%로 낮아졌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순조대 39.5%, 헌종대 37.6%, 철종대 39.5%로 다시 높아졌다가 고종대에 이르러 34.2%로 크게 낮아졌다. 정조대와 비교하면 서울 출신의 친림시 급제 비율은 계속 낮아졌지만 전체 문과 비율은 정조대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8> 친림시 원방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명)

왕대 / 지역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서울	216	24	506	69	103	24	40	72	1,054
	81.8%	85.7%	69.0%	58.5%	51.0%	36.4%	35.1%	26.0%	58.5%
기타	48	4	227	49	99	42	74	205	748
	18.2%	14.3%	31.0%	41.5%	49.0%	63.6%	64.9%	74.0%	41.5%
합계	264	28	733	118	202	66	114	277	1,8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명)

왕대 / 지역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서울	665	93	983	263	414	171	186	604	3,379
	46.9%	50.8%	46.3%	33.8%	39.5%	37.6%	39.5%	34.2%	41.0%
기타	753	90	1,141	514	635	284	285	1,162	4,864
	53.1%	49.2%	53.7%	66.2%	60.5%	62.4%	60.5%	65.8%	59.0%
합계	1,418	183	2,124	777	1,049	455	471	1,766	8,2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세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지역을 정리하면 시종별로 서울과 지방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식년시는 서울 출신이 6.7%로 경화사족들의 식년시 기피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증광시는 58.4%, 직부전시자는 56.3%로 서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직부전시자의 경우가 주목된

다. 직부전시자는 17세기 119명, 18세기 730명으로 친림시보다 비중이 낮았지만 19세기에는 1,129명으로 식년시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표 10> 19세기 시종별 문과급제자의 출신지역 비교(명)

시종 / 지역	식년시	직부전시자	친림시	증광시	별시	외방별과	기타	합계
서울	71	637	239	331	88		8	1,374
	6.7%	56.3%	36.3%	58.4%	44.9%		36.4	36.7%
기타	993	494	420	236	108	102	14	2,367
	93.3%	43.7%	63.7%	41.6%	55.1%	100.0%	63.6	63.3%
합계	1,064	1,131	659	567	196	102	22	3,7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부전시는 정식의 과거가 아닌 성균관 課試의 우등자에게 주어지는 시상으로 숙종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례화되었다. 직부전시 자격이 부여되는 시험은 절일제와 황감제, 춘도기, 추도기, 관학유생 응제, 일차유생전강 등 정례화된 시험 외에 국왕행차에 참여한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參班儒生應製 등과 같이 비정례적인 시험도 있었다. 이중 절일제와 관학유생응제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通方外'라고 하여 일반 유생에게까지 응시를 허용하였다.

<표 11> 직부전시자의 거주지 분포(명)

왕대 / 지역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서울	87	3	204	127	139	73	92	333	1,058
	65.9%	75.0%	50.1%	49.0%	69.8%	68.9%	66.2%	48.6%	54.8%
기타	45	1	203	132	60	33	47	352	873
	34.1%	25.0%	49.9%	51.0%	30.2%	31.1%	33.8%	51.4%	45.2%
합계	132	4	407	259	199	106	139	685	1,9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부전시자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 출신은 직부전시 하사가 본격화된 숙종대에는 65.9%를 차지하였으나 영조대와 정조대에는 50.1%와 49.0%로 그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순조대 69.8%, 헌종대 68.9%, 철종대 66.2%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고종대에 가서 48.6%로 급감하였다. 즉 19세기에는 친림시에서 나타난 서울 편중 현상이 완화된 반면 직부전시 하사가 서울에 편중되는 양상은 강화된 것이다. 이것은 세도정권이 친림시가 아닌 직부전시의 하사를 통해 정치권력을 재생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순조-고종대 급제자를 서울 출신과 지방 출신으로 나누어 직부전시자의 비율을 따져 보면 서울은 46.4%(637명/1374명), 지방은 20.8%(492명/2367명)로 큰 차이가 있다. 19세기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의 절반 정도는 정식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성균관 등의 과시를 통해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그 비율이 지방 출신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세도가문인 서울출신 안동김씨 根자·炳자 항렬과 풍양조씨의 경우를 보면 각각 37명 중 23명, 33명 중 21명이 직부전시자로 비율이 60%를 상회하였다. 또 金祖淳의 아들·손자와 여서·손서 중에서는 11명 중 9명이 은사 출신으로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 중앙권력의 핵심에 가까울수록 직부전시 자격을 얻어 문과에 급제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따라서 직부전시가 중앙정치권력을 재생산하는 주요 장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고종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종대 서울출신 여흥민씨 문과급제자 33명 중 22명도 직부전시자로 여전히 직부전시가 정치 세력의 기반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직부전시의 하사가 늘어나면서 과점은 사라졌다는 점이 세도정치기와 다른 점이다.

과거 시종과 정치 권력의 재생산 사이에 나타하는 상관관계는 급제 후의 청요직 진출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신진 관료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翰林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19세기 한림은 모두 225명이 확인된다.[48] 이중 210명이 서울 출신이고, 10명은 경기도, 5명은 충청도 출신이다. 이중 경기도 7명, 충청도 5명 모두는 고종대 한림에 선발된 경우이며, 순조대-철종대의 한림 127명 중 단지 3명을 제외한 124명은 모두 서울 출신이다. 따라서 한림직이 철저하게 서울 출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문별로는 안동김씨 25명, 풍양조씨 18명, 여흥민씨 15명, 전주이씨 15명, 대구서씨 13명 등 주요 세도가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한림을 배출하였다. 서울의 세도가에서 한림직 운영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8) 『淸選考』(국립중앙도서관 古2513-6) 및 『고종실록』. 한림 중 閔京鎬는 『국조문과방목』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림들이 급제한 시종을 보면 225명 중 115명(54.7%)이 직부전시자, 51명(22.7%)이 증광시, 38명(16.9%)이 친림시 출신이며, 식년시 출신은 1명 뿐이었다. 문과급제자의 30.2%를 차지한 직부전시자 중에서 54.7%의 한림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직부전시자들이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길이 보다 넓었다는 것을 의미한다.[49] 이것은 결국 성균관을 통한 직부전시 하사가 중앙정치권력을 재생산하는 주요 창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50]

직부전시를 하사하는 성균관 과시는 주로 성균관 원점 유생이나 거재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울 출신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 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응시자가 200-300명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도 있었고, 응시자를 식별할 수도 있었다. 물론 세도가의 자제들은 오랜 전통을 지닌 家學에 기초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 보다 수준높은 제술 능력을 갖춘 경우도 많았으며, 그 내부에서 다시 치열한 경쟁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문과의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벗어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다. 즉 세도정권은 성균관 과시를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정치기반을 재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12> 19세기 翰林의 출신 지역 및 급제 試種(명)

시종 / 지역	경	경기	충청	합계
직부전시자	115	6	2	123
증광시	46	3	2	51
친림시	37	1		38
별시	11		1	12
식년시	1			1
합계	210	10	5	225

* 전거 : 『청선고』,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49) 19세기 시종별 문과급제자의 비율은 직부전시자 30.2%(1,120명/3,741명), 식년시 28.4%(1,064명/3,741명), 친림시 17.6%(659명/3,741명), 증광시 15.2%(567명/3,741명)였다.

50) 남지대는 세도정치기의 문과 운영에 대해 식년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지배층내의 민심수습책으로 주로 기능하고 경과가 중앙정치세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남지대, 앞의 글, 147-150면).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직부전시자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직부전시자는 방목상에서는 여러 시종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방목의 분석만으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방목상의 시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부전시 출신 한림 123명 중 식년시 출신이 37명으로 되어 식년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세도정권은 정치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黃玹은 순조·헌종대 이후 '統科'라는 과거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세도가 자제들 중 문과에 급제시킬 자들을 순서대로 여러 시험에 안배하여 합격시키는 것을 일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51]

19세기 문과의 시행 결과는 외적으로 보면 경향 간의 불균형이 완화되었으며, 평안도의 급제자가 늘어나는 등 삼남과 이북 지역의 불균형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가문이 확대되면서 계층 이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시종 간의 차별과 직부전시 하사를 활용하여 집권층의 권력 기반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집권층은 완전 경쟁이라는 과거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그 속에서 권력기반을 재생산하기 위한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과거제 문란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가지 현상, 곧 시험의 빈설, 응시자의 증가, 선발 결과의 편중 문제에 비추어 19세기 문과의 운영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는 과거제에 대한 당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19세기 과거제의 운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문에서는 이에 따라 문과 시행의 추이, 응시 경향, 문과 선발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흔히 19세기에는 과거가 남설되고 선발인원이 증가하고 응시인원도 증가한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순조-철종대까지는 시행횟수, 선발인원, 응시인원이 정조대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런 경향은 1870년대에 급변하여 과거 남설, 선발인원 증가, 응시인원 증가라는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

51) 황현, 『매천야록』 "純憲以後 權戚世柄 百爲無公道 而科弊尤甚 於是 有所謂統科之稱 對衆目而顯 取綺紈子弟 今歲不選 明歲不黜 挨次屈指 視爲常典 即麗季紅粉榜故轍也. … 上欲選統科則命最應·舜澤 欲公選則命炳始·弘集, … 京師諺 科占七夕製 判書無一箇 是以當統科者巧避之". 박득녕은 철종 12년 식년 문과 회시에 대해 '西湖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평안도 출신이 11명이었던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박득녕,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신유년(1861) 4월 24일 "東堂覆試及第嶺南六人 皆西湖統 甚者不開口而爲之 無初試而爲之云"

반적인 인식은 고종대의 상황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문과제도를 이해할 때에도 순조-철종대와 고종대를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 하에서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순조-철종대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문과 시행의 측면에서는 정시·알성시와 같은 친림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18세기와 달리 성균관을 통한 直赴殿試의 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조대 직부전시 하사가 과다했던 데 대한 반작용으로 순조대에는 그 비율이 낮았지만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져 문과 급제자는 일반 문과 출신자와 직부전시자로 이원화 되었다.

과거 응시의 측면에서는 생원·진사시와 정시에 응시자가 몰린 반면 식년시·증광시 문과 응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식년시 기피현상은 18세기 서울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19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학과 사장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선초의 이상은 사라졌으며, '賦' 한 과목으로 사실상 문과 급제자가 결정되었다. 이로써 진사시와 문과의 차별성도 약화되었다.

지방유생들도 향시보다는 한성시 응시를 선호하였다. 서울에서 시행되는 정시, 알성시 등 친림시와 식년시 생원·진사시는 대부분 성균관 절일제나 應製와 병행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상경으로 2회 이상의 응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응시자 수는 지방 유생들의 상경 여부에 따라 크게 큰 등락을 보였다.

선발 결과 면에서 보면 숙종대 이래 문제가 되었던 과거 급제, 특히 친림시 급제의 서울 편중 양상은 완화되었다. 또 평안도 급제자의 증가로 지역간 불균형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반면 직부전시자의 서울 편중 양상은 정조대보다 훨씬 심화되었고, 정치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직부전시자의 비중이 높았다. 즉, 세도정권은 직부전시 자격 하사를 이용하여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 정치기반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순조-철종대 문과의 운영 양상은 과거의 시행과 선발을 적절히 통제하여 외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직부전시라는 보다 특권화된 방식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고종대에는 응시를 제한하던 요소들이 해소되며 시행횟수, 선발인원, 응시 인원들이 급증하였다. 그 가운데 세도정권기에 형성된 직부전시자의 서울 편중 현상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직부전시 하사는 여전히 집권세력을 구축하는 관문

으로 활용되었다.

세도정치기 문과의 시행과 응시 경향은 정조대와 유사하였다. 세도정권은 정조대와 마찬가지로 문과 시행을 자제하고 선발인원도 통제하였다. 그러나 정조대 후반에 응시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이전시기보다 경쟁이 훨씬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 가운데 세도정권은 정식 문과가 아닌 성균관 과시의 직부전시 하사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정치세력을 재생산했다. 고종대에는 과거를 자주 시행하고 선발인원도 늘려 과거에 대한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하였으나 역시 집권세력은 특권적인 방식으로 경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일반 문과는 집권층의 형성에 부차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문과가 정시와 성균관 과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試題가 賦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과와 진사시 사이의 차별도 거의 사라졌다. 이것은 고종대에 과거 응시 인원이 급증하게 되는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문과의 이념은 실효를 상실하였다.

19세기 문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실상 숙종대 이래의 변화가 심화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결정적 차이는 영조·정조대 성균관 교육의 강화를 위해 정비되었던 성균관 과시를 통해 중앙정치권력이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반 문과는 정치권력을 재생산하는 데 부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19세기 문과 선발의 결과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문과와 정치권력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데서 비롯된 면이 크다.

주제어 : 문과, 성균관, 직부전시, 향시, 한성시, 정시

접수일(2011. 6. 2), **심사시작일**(2011. 6. 3), **게재확정일**(2011. 6. 13)

<Abstract>

A Study on Higher Civil Examination in the 19th Century

Park, Hyun Soon *

This article examined the management of higher civil examination, munkwa, in the 19th century, from three aspects, that is, the selection policy of the nation, the application ten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 results of examinations.

The general tendency of the 19th century, except for the period of king Kojong's reign, was similar to that of the period of King Jeongjo's reign who had trie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higher civil examination.

The times of examinations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cadidates were controlled appropriately. There were little big changes of the number of candidates and their preference for Jeongsi and Hanseongsi. And the opportunities of success in examinations were more open to local elites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in Seoul, a chronic problem in the 18th century, was more or less relieved, though the competition grew somewhat more fierce.

However there was a big difference. The large proportion of the uppermost class, forming the core of political force, chose to acquire qualification not through the traditional higher civil examination but through the Seong'gyungwan test perhaps to avoid keen competition. Eventually the traditional higher civil examination served the subservient function in the formation of political force.

Consequently the local elites c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succeed in higher civil examination, but could not approach to the core of political power.

Key Words : Higher civil examination(文科), Seong'gyungwan, Qualification to apply to the final seesson(直赴殿試), Hyangsi(鄕試), Hanseongsi(漢城試), Jeongsi(庭試)

* Research Fellow,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